

전생서 열반까지 옛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



옛 그림, 불교에 빠진다
조정욱 지음
아트북스 펴냄
1만8천원

이 책은 스물아홉 살에 출가해서 여든 살에 열반에 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발자취를 따라가되, '전생'에서 '열반'하기까지의 과정을 불화(佛畵)가 아닌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 병풍화 등의 옛 그림으로 들려준다. 특이한 접근 방식 만큼이나 여덟 개의 장으로 나눈 구성도 예사롭지 않다. 이 구성은 부처님 생애 요약본으로 통하는 <팔상도(八相圖)>에서 형식을 빌려왔다. 팔상도는 도솔천서 호명보살로 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상에 내려온 '도솔래의상' 서부터 쿠시나카라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든 '쌍림열반상'까지 생의 중요한 장면을 여덟 개의 그림으로 압축한 불화다. 여기에, 부처님의 생애 주인공을 더하는 옛 그림이 포개진다. 부처님의 일생은 다시 옛 그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한마디로 이 책을 집약하면 위대한 부처님의 생애와 옛 그림이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부처님과의 만남을 드라마틱하게 펼쳐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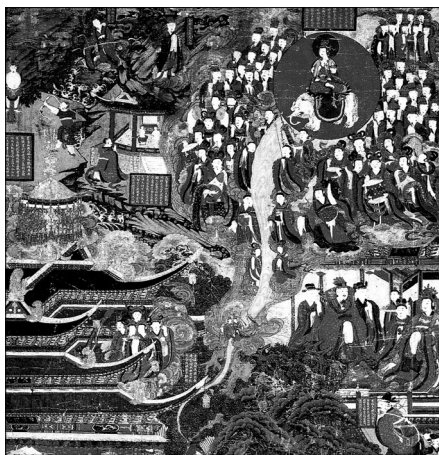
사실 옛 그림과 부처님과는 무관하다. 옛 그림이 부처의 삶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의 가르침을 소재로 한 것도 아니다. 이런 조합은 낯선 방식의 글쓰기이다.

그래서 후자는 부처님 일대기를 옛 그림으로 조형한 스토리텔링 방식이 프락할 법하다. 이는 저자의 전공이 옛 그림인 탓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불법(佛法)의 세계를 불화로만 설명하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불교서 인생 진리를 구한 저자는 꾸준히 불교 공부에 매진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진리를 깨닫기도 쉽지 않지만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며 평생을 바치는 게 더욱 어렵다"며 "쉽지 않은 일을 45년 동안 오묘한 마음으로 실천한 이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존경의 의미를 표한다. 저자 역시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의 정진을 바탕으로 옛 그림을 조명한다. 부처님의 각 생애에 부합할 만한 그림들을 엄선해 그 의미를 깊고 넓게 만든다. '전생'과 정선의 <단발령망궁강>, '탄생'과 <왕세자탄강진화도>, '생로병사'와 신윤복의 <미인도>, 강세황의 <북천오부인상>, '출가'와 <교과설후>, '고행'과 <석가모니 고행상>, '깨달음'과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전법'과 안견의 <몽유도원도>, '60아라한'과 이인상의 <송하수업도>, '업보'와 김득신의 <벼타자>, '열반'과 <일월오봉도>식이다.

저자는 책에서 진경산수화와 본생담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피력한다. "진경산수화의 전개 과정은 '본생담'의 그것과 닮아 있다. 위대한 분에 대한 존경심서 하나의 '본생담'이 출현하자 이에 자극 받은 다른 이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옛 그림과 불교의 행복한 동행 전3권으로 완간될 '불법승' 시리즈

아가기 뒤를 이었고 마침내 500여 종이 넘는 풍부한 이야기가 꽃핀 것과 같다. 정선이 <단발령망궁강>에 구름을 넣은 이유는 속세와 구분되는 금강산의 신령스러움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한다. 이 말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야기는 본생담+경제 정선의 진경산수화+현재의 우리로 긴밀하게 짜여 있다. 각 글이 목표로 삼은 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자는 화가만큼이나 애뜻하고 안목높게 그림을 가이드한다. 가령 이렇다. "조희룡의 <홍백매8곡병>은 노복에 대한 예찬이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노복의 껍질은 농부성인의 손바닥처럼 거칠거칠하다. 조희룡은 용 비늘처럼 거친 노복의 질감을 드러내기

위해 나무속을 비웠다. 대신 거친 껍질 속에 농담이 다른 선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칠함으로써 세월을 표현했다."

이런 실감나는 묘사는 부처님의 생을 언급할 때도 이어진다. 저자의 글에는 자신의 체험이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진정성이 가득하다.

저자는 "자비심은 구도심보다 위대하다. 자비심이 바탕이 된 전법은 출가만큼 중요하다. 출가가 '위대한 버림'이었다면 전법은 '위대한 선택'이다. 석가모니 부처의 위대한 선택에 의해 우리는 사문 고타마가 겪었던 고생을 겪지 않고서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무명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고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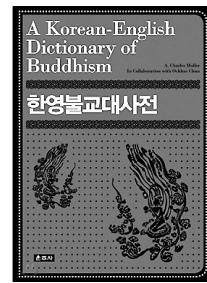
저자의 진심 속에서 우리는 옛 그림도 익히고 부처님의 일생도 접하게 된다. 일석이조다. 그런데 저자는 한 걸음 더 나간다. 이들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저자의 삶과 만나서, 올바르게 사는 법을 숙고히 한다. 옛 그림과 부처의 발자취와 통하는 저자의 개인사는 먼 과거사인 옛 그림과 부처의 생을 현재진행형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옛 그림의 메시지이자 부처의 가르침임을 일깨워준다. 만약 저자의 개인사가 빠지면 이야기는 '현재' 없는 과거사가 되고, 우리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이야기'에 머물게 된다. 그만큼 개인사의 노출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12000여개의 방대한 표제어 설명 ... 국내 한영불교사전 중 최대 규모

A Korean-English Dictionary of Buddhism: Han-Myeong-bul-gyo-sa-jon

찰스 물러·전옥배 공저 | 운주사 펴냄 | 9만원



사전은 한 분야의 학문적 수준은 물론 한나라의 출판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다. 그 자체만으로도 동시대의 학문적 수준을 가늠하는 총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과 수준 및 관점을 가진 사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불교학계는 더 많은 사전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기제로서의 한영 불교영어 사전은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12,000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표제어, 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상세한 설명, 표제어의 의미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본의미 등으로 구성된 이 사전은 전 세계 50여 불교학자들이 참여한 전자불교사전을 토대로 편집된 한영불교사전이다. 이 사전의 모태는 동경대 물러 교수가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불교사전(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이다. DDB는 물러 교수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불교 관련 학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세계최대의 전자불교사전이다. 현재는 약 6만여 개의 표제어가 올라와 있다. 이번 사전에서는 전자사전서 불교연구사 불교이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표제어를 우선 추출해 정리하고, 아울러 한국불교와 관련된 표제어들을 보충하는 형식을 취해 편집 보완했다. 표제어는 주로 불교 교리, 사상, 역사, 문헌 등과 관련된 용어들이며, 특히 한국불교와 관련하여는 주요 인물, 사상, 사찰, 문헌,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 한국 사전으로서의 특색을 살렸으며, 국내에서 출간된 한영불교사전 중 최대 규모다.

불교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해설은 해당 표제어에 대해 피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근원적인 해석을 해 놓았다. 즉 학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설명은 전문가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을 위한 사전이다. 각 표제어 및 설명에서 산스크리트어를 표기해 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기본의미(Basic meaning)이다. 표제어의 의미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기본의미를 별도로 표기해놓아 상세히 설명을 보기 전에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비전문가들이나 상세한 설명을 읽기에 버거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기본 의미는 각 표제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읽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전서 또다른 특징은 고유명사에 대한 영어식 풀어쓰기나 개념에 대한 풀

50여 학자 참여한 전자사전 토대 표제어 해석 위한 '기본의미' 표기

이를 한자/한글을 병기해 놓아 우리나라 독자들을 비롯한 한자문화권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배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자문화권 독자들이 이 사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자 총회 색인을 부록으로 첨부했다. 이런 세세한 배려가 아 니더라도 사전의 편찬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 책 역시 기획부터 출간까지 7년 여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사전 편찬에는 두 학자의 의기투합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바로 찰스 물러 동경대 교수와 전옥배 한국불교번역연구원장이다. 현재 일본 동경대 인문사회 대학원 교수인 찰스 물러 교수는 10여 년간 원효 사상에 빠져 원효의 여러 저술을 영어나 일본어로 된 논문으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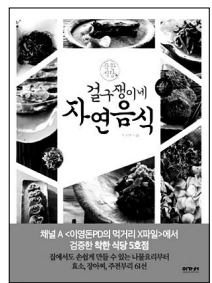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수료한 전옥배 원장도 현재 한국불교번역연구원(KIBET)의 책임자로 재직하며 불교 영역 및 통역 사업과 국제학술회 등의 기획에 주력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가정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사찰 요리 61선

겉구쟁이네 자연음식

안서연 지음 | 이가서 펴냄 | 1만4천원



요즘 종편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먹거리 X파일'이다. 먹거리는 넘쳐나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요즘과 잘 맞아 떨어지는 기획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 프로그램의 착한 식당 5호점에 선정된 '겉구쟁이네' 음식점 대표다. 이 식당은 2012년 국산 채소로만 차린 착한 나물집으로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에서 철저한 검증 후 착한 식당으로 뽑혔다. 선정 당시 박연경 푸드컨설턴트는 "냉이 같은 흔한 식재료로 상을 차렸다. 그런데 반

찬들 하나하나가 원재료의 맛을 잘 살려냈다. 주인의 내공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이 책은 오신채, 육류, 해물 없이 영양도 맛도 쟁기는 사찰식 요리법 61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화학조미료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나물요리부터 효소, 장아찌, 주전부리 등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사찰음식 요리법은 몸과 정신을 이롭게 하며 바쁘게 사는 현대인에게 수목화의 여백처럼 잠시 쉬어가게 만든다. 인스턴트 음식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처음에는 입에 안 맞고 낯설 수도 있지만, 오염되지 않은 재료 본연의 맛을 알아가면서 결국은 입도 즐겁고 몸도 편해지는, 더불어 마음도 차분해지는 음식들이다.

사찰음식은 오신채, 즉 매운 채소인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겨(산마늘 종류)를 쓰지 않고, 육류와 어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육류와 어류는 계율로 살생을 금했으니 당

연한 것이고, 오신채는 수행자의 화를 일으켜 동하게 하므로 예부터 쓰지 않았다. 음식에는 조급해지고 거세어지며 참지 못하게 동하게 하는 동적인 음식과 그렇지 않은 정적인 음식이 있는데, 정적인 음식은 동적인 음식에 비해 편안함이 있고 소화가 잘되는 자연스러운 음식이다. 사찰음식은 바로 이 정적인 음식으로 몸과 정신을 이롭게 하는 건강한 섭생 음식인 것이다.

겉구쟁이네 사찰음식은 공기 좋고, 오염되지 않은 산야에서 구한 제철 나물에 최소한의 간만 해 맛있게 무쳐내거나, 약성 좋은 산야초로 효소를 만들고, 장아찌를 담근 것들이다.

전이나 부각 같은 주전부리와 도토리 된장 수제비 같은 별미 상차림도 있다.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낄 수 있고 특별한 음식이라 여길 수 있지만, 결코 어렵지도 않고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는 요리들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자연음식, 사찰음식에 쓰

는 재료들의 특성과 약성을 알아보고, 재료 손질법부터 재료별 조리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려준다.

총 4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나물 요리 조리법과 함께 나물 손질법이라든가 보관법, 나물을 데칠 때 노하우, 나물의 특성에 따라 어떤 조리법과 양념을 쓰면 좋은지, 제철 나물 등을 알려준다. 또한 제2부에서는 효소를 비롯한 각종 장아찌 담그는 법과, 장아찌 담글 때의 유의사항, 활용법 등을 알려주고, 제3부에서는 조림이나, 강정, 찜 같은 요리의 조리법과 조리법에 따라 양념 쓰는 노하우, 도토리 된장 수제비와 콩나물 버섯 밥과 같은 별미 요리의 조리법을 설명해 준다. 마지막 제4부는 부각, 전, 총떡, 장떡 같은 삼삼품이 먹거리를 모아 소개하고, '겉구쟁이네'에서 내고 있는 무말랭이 차와 산야초 차에 대해 알려준다. 각 가정서 해 먹어 보면 충분히 착한 식단이 될 수 있는 레시피들이다.

김주일 기자



공동 저자들이 함께 웃고 있다. 왼쪽부터 전옥배 원장과 찰스 물러 교수.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